

여수에 전국 춤꾼들 모인다

11~12일 K-문화 청소년 페스티벌...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103개팀 소상공인 플라마켓 등 행사 다채... "박람회장, 문화예술힐링 공간으로"

전국 춤꾼들이 여수에 모인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이하 공사)가 주최하는 'K-문화 청소년 페스티벌'이 11~12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무용대회(댄스경연), 세대 공감 음악공연, 여수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라마켓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무용대회에는 여수, 순천, 광양 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서남권, 대전 등 전국

의 춤꾼들이 각지에서 모여 총 103개팀이 출전할 계획이다. 경연 종목은 힙합, 스트릿댄스, 라인댄스, 방송댄스, 뽀뽀댄스, 라틴댄스, 스포츠댄스 등이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4개 분야로 구분해 개인전과 단체전 입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1일 오후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12일에는 지역 소상공인의 플라마켓도 개최하는 등 지역민과 관광객에

게 다채로운 문화예술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10월부터 박람회장 내 스카이다워 야간 개장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과 낭만적인 해안도심의 정취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페스티벌과의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공사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인수하고 처음으로 K-문화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감회가 새롭다"며 "청소년과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축제를 기획해 박람회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문화예술힐링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의 명동'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중앙동·남내동 5년간 80억 투입... 청년 소상공인 유치 사업 등 추진

순천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2024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80억원으로 2024년부터 5년간(3년+2년)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순천시 원도심 일원으로 중앙동, 남내동 일원이다. 중앙시장, 원도심 상점가, 지하상가 싸내물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곳을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먹거리 특화 골목 조성, 청년 소상공인 유치 및 업종전환, 디지털 전환, 상인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원도심은 순천부흥성터가 위치한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상권이 형성된 곳이다. 1990년대까지 '순천의 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순천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신도심의 개발, 신 유통업체의 지역진출과 온라인 판매 증가 등으로 인구 감소 및 소비 구조가 변화면서 최근에는 상가 공실률이 33% 이르는 등 도심 상권 전체가 쇠퇴해 가고 있다. 시는 이번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서 활기가 가득하고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상권활성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사전절차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전남도에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원도심으로 시민들과 청년들이 다시 찾아옴으로써 상점가를 비롯해 원도심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는 행정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건물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상인들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보성군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메모리&멜로디마을, 공연·교육·마을 축제 프로그램 등 운영

보성군의 청년단체인 벨라보체 합창단의 '메모리&멜로디마을 사업'이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2차)' 공모에 선정됐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전남도 9개 시군, 13개 단체가 응모해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성군 '벨라보체 합창단'의 '메모리&멜로디마을'을 포함해 하반기 5개소가 청년마을에 선정됐다. 벨라보체 합창단의 '메모리&멜로디마을'은 지

역 예술인들이 특량역 추억의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상가와 빈주택 등을 자원화해 청년문화와 청년 예술공동체가 공존·연계된 생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모리&멜로디마을은 청년음악살롱 '길' (공연), 지역 문화 예술학교(교육), 청년 예술인 창작·창업지원(역량 강화),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지역 참여·성과공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벨라보체 합창단 임태욱 대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문화의 힘으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보성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마을 공간조성, 특화 프로그램 구성·운영을 통해 잠재된 특량역 추억의 거리에 청년들의 보성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멧돼지·고라니 1221마리

고흥군 유해동물 포획 성과

10월까지... 전년비 77% 증가

고흥군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추진 중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성과를 내고 있다. 고흥군은 올해 10월까지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325마리, 고라니 896마리 등 1221마리다. 지난해 포획된 멧돼지 251마리, 고라니 496마리 등 747마리보다 77%나 증가한 수치다. 군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다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을 적극 지원한 결과로 분석했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 가입과 유류대, 실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에는 마리당 포획포상금으로 멧돼지는 30만원, 고라니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추가 설치

개당 10원씩 적립

광양시가 시민들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과 재활용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4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광양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총 6대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설치 장소는 ▲광양읍사무소 2대 ▲제2청사 1대 ▲중마동사무소 1대 ▲광영동 드림스타트센터 1대 ▲백운소방센터 1대를 설치했고 이번엔 4대를 추가 설치했다.

신규 설치 장소는 총 3곳으로 골약동사무소(1대), 마동근린공원(2대), 광영동사무소(1대)이며, 올해 10월부터 가동이 시작됐다.

해당 수거기에 빈 캔이나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인공지능 센서가 자동으로 선별 압축해 분리수거하며, 이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재활용품 개당 10포인트(10원)를 적립해 준다.

1인당 1일 200개까지 투입 가능하고 2000포인트 이상부터 환급되며 수퍼빈 홈페이지(www.superbin.co.kr) 또는 수퍼빈 애플리케이션에 가입 후 포인트 확인 및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 직원들이 유치원 원아들을 상대로 재활용 분리수거장 활용교육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인공지능 자동수거기를 2만1757명이 이용했으며 폐트병 612만 개(122t)를 수거하고 현금 4500만 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

김용식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를 인공지능 자동수거기에 넣어 재활용하는 재미도 느끼고 현금도 환급 받기 바쁘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LG화학, 여수 청소년 위해 3천만원 후원금

LG화학 여수공장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후원금 3000만원을 여수 YMCA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LG화학 사회공헌활동인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알지 풀지', '여수 쓰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2005년부터 진행돼 농구대회 외에도 문화 공연, 체험 부스 등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청소년 문화 교류의 장을 넓히고 있다.

알지 풀지는 LG화학이 만든 ESG실천 어플 '알지(RZ)'를 연계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미션을 수행하며 일상 속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을 돕는 활동

이다. 여수 쓰담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여수 해안가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수거한 쓰레기를 기부금으로 환산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LED전등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LG화학은 사회공헌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대상 노후 백열등을 LED전구로 교체하는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윤명훈 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인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